

Pedro Calderón de la Barca의 *La cisma de Inglaterra*는 바로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답의 일부를 마련해 준다.³²⁾ 당대 영국과 스페인이 서로에게 느끼는 적대감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Henry 8세의 이혼과 종교 개혁을 소재로 삼아 그 동인과 의의를 분석, 점검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Calderón의 초기작으로서 Philip 4세 내외를 위해 1627년 왕궁에서 공연한 작품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즉 당대 영국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한 Calderón의 문학적 반응이라는 생각이다. 1620년대 초의 영국과 스페인 관계는 ‘스페인과의 혼담’이라는 매우 감정적인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영국의 왕세자 Charles와 스페인 왕 Philip 3세의 딸 María 공주를 결혼시키자는 이 혼담은 Philip 3세 때부터 이미 James 1세와의 사이에서 오간 이야기였지만, 당시까지 별 성과 없이 계속 질질 끌려오던 중이었다. 물론 영국의 대(對)천주 교회 정책을 수정하라는 스페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혼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교황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였던가 등 이 혼담의 성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러던 중, 1623년 봄에 Charles 왕세자가 Buckingham 공작을 대동하고 갑자기 Madrid에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단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Charles가 그곳에서 María 공주의 구혼자로서 머물렀던 몇 달 동안 영국과 스페인의 국민적 관심은 온통 이 혼담의 성사 여부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³³⁾ 이 결혼 문제는 영국에서는 물론 스페인에서도 공포에 가까운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혼담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Charles와 María의 경우가 Henry 8세와 Catherine of Aragon의 경우와 놀랍게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Catherine처럼 María 공주 역시 독실한 천주교 신자고, Henry 8세처럼 Charles도 형이

32) 이 작품의 텍스트로는 스페인어-영어 대조본이며 Kenneth Muir와 Ann L. Mackenzie가 공역한 *The Schism in England (La cisma de Inglaterra)*, Hispanic Cl Series (Warminster, Wilts.: Aris & Phillips, Ltd., 1990)를 사용하였다.

33) Calderón이 Charles 왕세자를 위한 연회에 참여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1623년에 *Amor, honor y poder (Love, honor, and power)*를 지어 Charles 왕세자 칭송한 바 있기 때문이다.

급사하는 바람에 왕세자가 된 둘째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이 혼담은 결렬되었고 양국 역사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정치적 여운을 남겼다. 1623년 왕위에 오른 Charles는 프랑스의 공주 Henrietta Maria와 결혼하였고, 1625년에는 스페인의 Cadiz를 침략했으며, 1627년에 이르러서는 영국을 스페인과의 사실상의 전쟁 상태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스페인의 반영국 정서는 영국에 관한 연극, 특히 Henry 8세가 행한 ‘교회 분열’ 행위와 Elizabeth 여왕이 스코틀랜드 여왕 Mary를 처형한 사건을 극화한 연극들에서 잘 나타난다. 이 두 사건은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영국이 일으킨 국제적 말쟁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Calderón의 *La cisma*는 당대 스페인의 이런 반응과 맥을 같이 한다.

Calderón이 이 극의 자료로 사용한 역사서는 Philip 4세의 독서 목록에도 포함된 바 있는 Padre Pedro Ribadeneyra의 *Historia eclesiástica del cisma del reino de Inglaterra* (1588)의 제 1권이였다.³⁴⁾ Ribadeneyra는 Henry의 이야기에서 이단은 단호히 처벌해야 하며, 난잡한 여자는 경계해야 하고, 못된 총신에게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 군주의 치세와 관련되는 교훈을 이끌어 낸다. Calderón이 그린 Henry도 기본적으로 Ribadeneyra가 지적하는 도덕적인 약점을 가진 왕의 모습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Calderón은 Henry를 외적인 영향력에 흔들리는 유약한 왕으로 그린다기 보다는 심각한 자기 분열에 빠진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Henry가 만들어 낸 ‘교회 분열’은 결국 Henry 자신의 비극적 내적 분열의 결과라는 해석인 셈이다.

그러나 Calderón이 만들어 내는 Henry의 비극은 현대적 의미의 심리적 분열에서 태어나는 비극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Henry의 내적 분열은 *auto sacramental*적 골격을 통하여 종교적인 맥락으로 좁혀져 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형식화되고 비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³⁵⁾ Calderón은 Henry의 영혼

34) Philip 4세가 이 작품을 직접 주문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Philip 4세의 궁정에는 대단히 종교적인 열정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자신도 스스로를 “Philip 대왕(the Great)”이니 “진정한 신앙의 수호자(Defende the True Faith)”로 자부하고 있는 판이었다.

이 “모든 인간(Everyman)”과 같이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서로 대결하는 장(場)임을 보여 줌으로써 Henry가 경험하는 분열에 *auto*적 우의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Henry를 종교 개혁으로 이끄는 Luther, Anne Boleyn, Wolsey에게도 역시 Henry의 영혼을 타락으로 이끄는 마귀의 대리인들이라는 우의적 역할을 할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Calderón은 Wolsey와 Anne을 Henry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영향력으로 해석한다기 보다는 종교적 힘, 특히 마귀의 유혹적 힘으로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Calderón은 Henry의 종교 개혁을 Shakespeare처럼 정치적인 맥락에서 읽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영혼이라는 초역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로 환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은 첫 장면부터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의 첫 장면은 꿈에서 본 환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Henry를 보여 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꿈에서 깨어난 Henry에게 편지 두 장이 전달된다. 하나는 Luther에게서, 다른 하나는 교황에게서 온 것인데, Henry는 Luther의 편지를 발로 밟으려다 실수로 오히려 교황의 편지를 밟게 된다. Henry의 설명에 의하면, Luther의 분과 행위를 비난하는 책자 *A vindication of seven sacraments, against Martin Luther (Assertio septem sacramentorum adversus Martinum Lutherum)*를 쓰다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Anne Boleyn의 환영이 나타나서 그 책자에서 결혼의 신성함을 옹호하는 대목을 지우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Calderón의 역사 해석은 도덕극적 성격을 띠고 인물은 *auto*적 알레고리를 향한다. 이 경향은 이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마지막 장면인 Mary의 왕위 계승권 확인 서약식에서 Henry는 다시 “신앙의 수호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고, 그 옆에 자리잡은 Mary는 트리엔트 공의회(the Council of Trent)가 표방한 바와 같은 공격적 천주 교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뿐

35) 그의 유명한 논문 “Henry VIII in Shakespeare and Calderón: An Appreciation o cisma de Inglaterra,” *MLR* 43 (1948): 327-52에서 Alexander A. Parker는 Cald Henry 8세의 모습에서 막중한 책임 아래 흔들리는 비극적 인간의 상정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Auto sacramental*에 대해서는 Melveena McKendrick, *Theatre in Sp 1490-1700* (Cambridge: Cambridge UP, 1989), pp. 238-60을 참조할 것.

아니라 그들의 발 밑에는 그들에 의해 처형된 개신교도 Anne의 시체가 놓여 있다. 사실 *auto sacramental*은 반종교 개혁(Counter-Reformation) 초기 스페인에서 개신교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서, 강한 반개신교주의와 천주교 교의에 대한 공격적인 지지는 이 장르의 특성이었다. 그렇게 보면 개신교도들은 악마의 대리인들이라는 트리엔트 공의회 교의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La cisma*의 시작과 끝은 이 작품을 *auto*적 전통 속에 확고히 위치시키는 셈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작품의 *auto*적 면모는 Henry를 둘러싼 인물들을 선악의 화신으로 양분하는 데서 특히 두드러진다. 따라서 선악의 대결장인 Henry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열은 그의 선악 구별 능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능력을 확고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선악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규정된다. 이 작품을 시작하는 대사에서 Henry는 Anne을 처음에는 “divine spirit, beauteous image”라고 지만 곧이어 “sun / In eclipse, lustreless star, beware, / For you offend the sun indeed, in seeking / To blot out such great splendour” (1-4)라 고쳐 부르고 있다. Anne은 진리의 빛을 가리는 어둠의 환영인 것이다. 이 부분은 Henry가 나중에도 거듭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Calderón은 Catherine과 Henry의 결혼이 합법적이라는 점에 관한 한 추호의 의심도 남기지 않는다. Henry 역시 그 점을 거듭 강조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이혼 요구의 변이 사실은 궤변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Wolsey에게 Catherine과 이혼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명령한 뒤 바로 이어지는 독백에서도 Henry는 “I must confess that I am mad and blind. / The truth I worship is the very thing / That I deny” (1623-24)라며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할 뿐 아니라 Wolsey가 자신을 “궤변”으로 “속였다” (1630)는 것을 알고 있으며, Anne에 대한 욕정이 결국 “The infernal fires that rage within my breast / has driven me, in a state of blind confusion, / To misconceive the truth and swallow lies” (1632-34)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Shakespeare의 작품에서는 모호한 상태로 남겨져 있는

부분이 여기서는 명료하고 단호하게 “거짓말”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Henry의 모든 행동은 오직 Anne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다. Henry의 독백에는 천주 교회가 타락했다거나 국왕의 지상권을 강탈했기 때문에 저항한다는 식으로 교리나 국가의 맥락에서 자신의 이혼과 종교 개혁 움직임을 정당화하려는 흔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에게 종교 개혁이란 국가적인 문제도 교리의 문제도 아니고 다만 자신의 개인적인 욕정을 달성하는 수단일 뿐이다. 요컨대 그는 언제나 선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면서도 개인적인 욕정에 휘말리는 인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최악인지 알면서도 최악을 저지르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체에 항복하며, 결국 그 죄 때문에 절망하는 비극적 인물인 것이다: “Unhappy Henry! For you damnation waits!” (2844). 요컨대 영국이 경험한 비극은 인간 Henry의 비극에 기인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Shakespeare가 종교 개혁이 종교와 별로 관계 없는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동기들이 서로 부딪친 결과 생긴 것일 수 있음을 보여 줬다면, Calderón은 역사를 인간의 개인적 영혼을 둘러싼 선악의 대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Shakespeare가 역사를 정치로 풀이한다면 Calderón은 도덕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Calderón의 *auto*적 역사 해석법은 역사를 지극히 개인적인 도덕의 차원에서 읽는 것 같으면서도 그 개인적 도덕의 문제를 개인을 넘어선 초월적이고 비역사적이며 우주적인 구도에 집어 넣는다. Calderón이 제시하는 구도 속에 놓고 볼 때 Henry는 자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인간일 뿐 아니라 것처럼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운명을 우의적으로 예시하는 초월적 인간이다. 따라서 Henry라는 개인이 또한 영국의 국왕이기도 하다는 ‘우연한’ 사실만이 Henry의 개인적 운명이 갖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의의를 보장해 준다. Henry 개인의 비극을 천주 교회의 비극적 분열과 영국의 국가적 비극으로 ‘번역’해 주기 때문이다. 결국 Calderón의 구도 속에서 종교 개혁이라는 사건은 “모든 인간”의 유약함이 표현된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다. Anne의 묘사는 바로 이런 식의 *auto*적 논리선상에서 이루어진다. Henry를 사로잡은 욕정은 단순한 욕정이 아니라 마

귀의 유혹인 것이다. Calderón은 Anne에 관한 한 동정의 여지를 남겨 두지 않는다. 원전에서 정의한 대로 Anne은 “soberbia, ambición y envidia y deshonestidad (pride, ambition, and envy and sexual immorality)”의 화신이다. Henry를 유혹한 것도 Anne이고, Wolsey와 정치적인 결탁을 하고 그를 배신하는 것도 Anne이다. 또한 Anne은 성적으로도 난잡한 여자로 그려져서 Catherine의 결혼을 파괴하고 영국을 배교국으로 몰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Henry를 만나기 이전에 Charles와 맺었던 결혼 약속을 배반하고 Henry와 결혼한 다음, 다시 그와 간통을 시도하기까지 한다. 뿐만 아니라 Calderón은 Anne에게 Catherine을 독살한 죄까지 뒤집어 씌운다. 요컨대 Calderón은 Henry가 Anne을 처형하면서 열거한 죄목을 모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Anne이 프랑스 궁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곳 언어와 예법에 능통했으며, 애교 만점의 야심 만만한 여자였을 뿐 아니라 야심 대단한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것은 사실이다.³⁶⁾ 그러나 그녀가 오빠와 자신의 시종을 비롯한 술한 남자와 교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학자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그러나 Calderón은 Anne에게 거의 마녀(혹은 Siren)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그리고 그 마녀의 종말은 마녀답게 참혹하다. 목과 몸통이 분리된 Anne의 시체는 Mary를 왕위 계승권자로 봉헌하는 장면에서 Mary가 Henry 옆의 옥좌로 올라갈 때 밟고 올라가는 발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Mary가 지옥의 힘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다. 결국 Anne을 마녀, 음녀, 요부, 독부로 그리는 이유는 자명하다. Anne이 창녀고 마녀라면 영국의 ‘분파 행위’는 유약한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Wolsey 추기경 또한 마귀의 대리인으로 그려져 있다. 이중성은 그의 또 다른 특징이다. Catherine에 대한 태도도 미신과 증오, 원한으 가득 차 있다. Calderón은 원전을 바꾸어 Anne과 Wolsey가 결탁하여 Catherine을 몰아냈다는 허구를 만들어 낸다. 사실 Wolsey는 (Shakespeare가 그린 것처럼

36) Anne의 언니 Mary Boleyn 역시 Henry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었으나 Anne과는 달리 정부로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럼) 오히려 Henry와 Anne의 결혼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Anne이 왕비가 되기 전에 실각했기 때문이다. Wolsey가 Catherine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이유 또한 실제로는 Charles 5세가 교황이 되려는 자신의 꿈을 무산시켰기 때문이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Wolsey가 본 별점의 점괘 때문인 것으로 되어 있다. 뜻밖에도 Wolsey의 미신적 태도야말로 그를 몰락으로 몰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주장은 개신교도들의 반천주교적 공격에 늘 등장하는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천주 교회의 미신적 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척 흥미롭다. Calderón은 Wolsey가 사이비 천주교 신자며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좀 더 분명히 해 주는 것이 Catherine에 대한 묘사다. Catherine Henry의 선한 천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Catherine은 비할 바 없이 착하고 일편단심 남편만을 사랑하는 조강지처, 현모양처일 뿐 아니라 기독교의 이상인 용서와 사랑을 구현하는 인물이다. Wolsey가 Anne에게 박해당했을 때 그를 위로해 주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에게 박해받은 Catherine이다. Wolsey가 사이비 천주 교회를 의미한다면 Catherine은 진정한 천주 교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더구나 짝사랑에 고민하다 죽어 가는 Catherine의 모습은 순교자적 수난의 암시까지 담고 있다. Catherine이 Anne이 독을 발라 놓은 Henry의 편지를 소중히 읽다가 독이 몸에 퍼져 죽는다는 이야기는 Catherine에게 Wolsey와 Anne의 반대 인물로서의 도덕적인 권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Catherine의 이야기를 마귀의 독에 침식되어 파괴된 진정한 천주 교회에 관한 우의적인 이야기로 바꿔 놓고 있기 때문이다. Calderón은 Ribadeneyra의 *Historia*에서는 암시적 언급에 불과하였던 Catherine의 독살설을 취하여 그 우의적의 측면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Calderón이 만들어 낸 허구 중의 하나인 Wolsey의 자살 역시 우의적이다. 마귀가 예수에게 요구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탑에서 뛰어내려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Wolsey의 모습은 그의 정신적 타락과 절망의 극을 표현하는 동시에 선한 힘의 승리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이쯤 되면 사이비 천주교 신자와 마녀가 함께 작당하여 Henry를 속여 만든 종교 개혁이 무엇인지 뚜렷해진다. 영국의 ‘분파’는 지옥과 연결되어 있으며, 미신

에서 탄생한 가짜 종교인 것이다.

사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영국의 반천주교주의의 특징이기도 하였다. 그런 사고로부터 Shakespeare가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것을 *Henry VIII* 증언해 준다면, *La cisma*는 Calderón의 반개신교주의가 그런 이분법적 사고 방식에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잘 보여 준다. 그렇지만 이 작품이 보여 주는 반개신교주의가 곧 반영국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실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그 자체로서 당대 스페인에 유포된 여러 소문과 질적으로 크게 다르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당대 스페인에는 Henry 8세는 괴물이고 Anne은 자기 오빠를 비롯한 수 많은 남자와 혼전과 혼후에 관계를 맺은 음녀일 뿐 아니라 심지어는 Henry의 서녀라는 소문까지도 퍼져 있었다. 그들의 딸 Elizabeth 여왕 또한 영국 사람들이 말하듯이 처녀 여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라는 게 당대 스페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스페인에는 영국의 반스페인주의에 필적할 만한 범국민적 반영국 정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영국의 반스페인주의가 영국의 국가주의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면, 스페인의 반영국 정서는 국가주의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무엇보다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물론 1537년에 시작된 종교 재판이 반개신교적 기구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한 것도 아니었고, 1545년의 트리엔트 공의회가 선포한 공격적 반종교 개혁 작업이 언제나 종교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 두 작업 다 영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스페인의 국가적 투쟁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종교 재판은 무어인(Moriscos)과 유태인(Conversos)을 다스리기 위한 대내 정치용으로 빈번히 사용되었고, 반종교 개혁 작업은 천주 교회 안에서의 개혁과 신대륙에서의 선교, 유럽 대륙에서의 종교 전쟁 등 주로 국제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다. 사실 스페인은 영국 공포증에 걸릴 감정적 필요도 여유도 별로 없었다. 그들의 관심이 영국보다는 유럽 경영에, 신세계 경영에, 이슬람 터키와의 전쟁에, 또는 자국 내의 계급 문제, 인종 문제 등에 집중되어 있었던 탓도 있고, 영국이 자신의 국가적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강한 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영국의 국가 정체성이 스페인이라는 적에 기대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스페인의 경우는

영국이 아니라 세계의 새로운 주인이라는 정체성에, 재건된 신성 로마라는 정체성에 매달린 셈이다.

그렇게 보면 이 극의 의미를 스페인과 영국 사이의 관계라는 맥락에만 한정하여 읽을 필요도 없다고 할 수 있다. Henry의 종교 개혁을 Henry의 국왕 지상권 주장과 Wolsey의 야심,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이 한데 묶인 국제적 역학 관계의 문맥에 위치시키는 Shakespeare의 작품과는 달리, Calderón의 품은 그런 국제적인 맥락은커녕 영국과 스페인의 관계조차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 작품이 언급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Anne과 Charles의 관계를 드러내고 Anne의 부패를 증명하는 배경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사실 이 작품은 반영국적 발언이라기 보다는 정치 세계 일반, 특히 당대 스페인과 유럽을 지배하는 정치 논리에 대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물론 Calderón처럼 Henry 8세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왕이 마귀 같은 총신과 요부에게 지배되면 국가적인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따위의 교훈을 끌어 내는 일이 꼭 반영국주의적 편견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컨대 Kyd의 비극이 비극 자체의 원인을 어떤 특정한 사회의 특정한 환경(예컨대 스페인 왕실의 부패)에서 찾고 그 원인과 자신이 속한 사회를 분리하려는 충동을 강하게 보인다면, Calderón의 역사 이해에는 타자와 아자의 구별이 없다. 다만 정치 세계의 논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뿐이다. 왕이 총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그곳이 꼭 영국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도대체 그런 주장의 씨앗도 찾아 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 작품을 정치적인 연극으로 읽는다면, 이 작품은 당대 유럽 전체, 특히 스페인에 대한 Calderón의 불안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 왕 Philip 3세의 총신 Lerma를 비롯하여 Philip 4세의 Olivares, 영국의 Buckingham, 프랑스의 Richelieu 등 총신(*privado* 혹은 *válido*)의 승세는 유럽 전역에 걸쳐 거의 제도화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총신 제도(*validismo*)는 신의 율법에 어긋나며 폭정을 가져올 뿐이라는 게 Calderón의 생각이었고, 이것은 *La cisma*뿐 아니라 나중에는 *La vida es sueño*에서도 표현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불안은 Calderón만이 아니라 Juan de Santa María(1619), Jerónimo de

Zaballos(1623)도 함께 나누는 바였으며, *La Estrella de Sevilla*나 *El burlador de Sevilla* 등 1620년대의 희극(*comedias*)에도 총신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이 작품의 원전 역시 Wolsey와 Cromwell을 총신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한 일이다.

그렇게 보면 Henry 8세의 총신 Wolsey가 통념적인 의미의 'Machiavelli적 인물로 규정되고 있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가 Machiavelli적 실제 정치 논리에 의해 행동하는 인물임을 잘 보여 주는 것이 Henry 8세에게 그가 주는 충고 “속마음을 감추십시오(Dissimulate)” (869)라는 말이다. Machiave이 말을 사용할 때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속임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충고지만, Wolsey의 입을 통해 나올 때는 ‘그런 척하십시오(simulate)’, 즉 개의 이익을 위해 속임수를 쓸 때조차도 국가의 이익을 앞세우는 척하라는 말로 그 의미가 바뀐다. Wolsey의 이 충고는 이 작품 전반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등장 인물들의 행동 논리를 이루고 있다. Henry의 이혼 요구의 변이 그러하고, Wolsey와 Anne의 행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하며, 이 극 마지막 장면에서의 Mary의 정치적 속임수 또한 그런 논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결국 이 작품이 보여 주는 것은 *La vida es sueño*가 보여 주는 바와 별로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도 국가라는 미명 아래 법을 희생하는 행위는 결국 사회 전체를 이기적 계산과 속임수의 파괴적 연속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Calderón은 Henry 8세의 이야기에서 총신 제도의 기반을 이루는 실제 정치 논리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정당화해 주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다.

결국 Calderón의 작품은 자신의 세계로 다시 한 번 돌아 온다. Henry 8세의 종교 개혁에 대한 탐구가 Charles 왕자와 María 공주의 혼담이라는 당대 스페인이 당면한 문제에 의해 촉발되었거니와, Wolsey와 Henry의 관계 또한 Calderón의 조국 스페인의 총신 제도 문제를 반영하는 거울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Calderón의 스페인도 영국을 종교적 또는 국가적 타자로 만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말할 때조차도 그 정도와 성격이 영국에서 ‘스페인’이 담당할 적대적 타자로서의 역할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부언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말이다.

영국을 마귀에 홀린 나라로 그린 이 연극에 당대 스페인의 관중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일본과의 축구 시합에서 한국 관중이 느끼는 것과 흡사한 알 수 없는 분노와 환희가 그들을 사로잡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저만큼 물러서서 선전적 이야기가 생략하고 바꾸어 놓은 실제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요구한다. Shakespeare의 작품에서 Anne의 처형과 Mary의 불행하고 짝막한 집권에 대한 이야기가 삭제된 것처럼, Calderón의 작품에서도 Elizabeth의 탄생이나 Mary 재위 중에 시도했던 천주 교회의 복원 노력이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이야기는 사라지고 없다. Shakespeare와 Calderón 둘 다 자신이 속한 교회 필연적 승리를 예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Shakespeare가 Henry의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반천주교주의와 반스페인주의로 끌고 가지 않은 것처럼, Calderón 역시 Henry 개인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영국인 전체에 대한 비방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 Calderón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대(對)영국 정서가 있다면, 그것은 비방보다는 영국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연민에 더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8. 결 언

영국과 스페인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는 17세기 후반까지 계속될 수 있다. 혹은 오늘날까지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할 점은 영국과 스페인의 정치, 종교, 경제적 충돌로 현상한 종교 개혁이 역사극이라는 장르를 탄생시켰을 뿐 아니라 역사에 대한 관심과 자의식을 영국 르네상스 연극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이다. 종교 개혁이야말로 Sidney가 “잡종 비극”이라고 비난한 영국 르네상스기의 연극, 그 위대한 잡종—정치와 종교, 경제 등 모든 사회적 요소가 연극이라는 문화 형태와 결합한 잡종을 만든 것이다. 그 “잡종”은 한편으로는 종교 개혁을 정당화하고 선전하고, 정착시키고 완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 개혁의 전제인 국가라는 개념, 영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연극의 종교적 의미, 또는 종교라는 말이 당대에 가졌던 다원적 의미를 감안하지 않는 연구는 지극히 비역사적인 연구, 즉 이 시대가 아닌 다른 어떤 추상에 대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Literary Encounters between England and Spain :

Anti-Hispanism in English Renaissance Drama

Jongsook Lee

This study responds to two great orthodoxies about English Renaissance drama. The one, established by Voltaire in the Age of Enlightenment, explains apparent similarities between Shakespeare and Calderón and Lope de Vega of the Spanish Golden Age in terms of direct literary influence and imitation, a view advanced and devoutly held by historicists of various persuasions in our century. The other has it that English Renaissance drama as a whole constitutes a narrative of a struggle for hegemony waged between the power élite based at the abeyance of the court and the new one emerging from the capitalist society. Both theories place English Renaissance drama in the larger context of the literary and political politics of early modern Europe. Interestingly enough, however, they both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Reformation, more than any other event of the time, changed the configuration of the cultural and political landscape of Europe. This study, then, seeks to engage scholarly attention in examining ways in which the Reformation dictated the form and content of English Renaissance drama.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story of the Reformation as the shaping force of English Renaissance drama is also the story of religious and cultural encounters and conflicts between England and Spain. Out of the encounters between these two nations grew the new genre of historical drama, which Voltaire seized upon as evidence of Spanish influence on English Renaissance drama. Indeed, English drama of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as a whole can be characterised as a response to the Reformation, and the political and religious issues these events generated. The first English history

Bale's *King Johan*, was also the first dramatic engagement in a propaganda war against the Roman Catholic Church. Bale reads the Reformation as an English triumph over the evil and corrupt Rome, an event inscribed in the Apocalyptic vision of a universal history, and which was prefigured in King John's struggle to protect English independence from papal control and invasion in the thirteenth century. Bale's reading goes a long way toward the creation of the myth of the Protestant England as the elect nation persecuted by an army of Antichrists. Catholic Spain and its threats to England were interpre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narrative of the elect nation. Spain became the chief target of the English Anticatholic campaign, and Anticatholicism interchangeable with Anti-Hispanism. The twin themes of the elect nation and Anticatholicism/Anti-Hispanism, born in response to the Reformation, proved to be the major impetus in the inception of English Renaissance drama and its development after *King Johan*.

The project of rewriting the history of the Protestant England as G nation initiated by Bale continued in the harrowing years of the reign Mary. The Geneva Bible and Foxe's *Book of the Martyrs*, both begun, and completed, in exile on the continent, are the culminating expressions o themes of the elect nation and Anticatholicism/Anti-Hispanism. And, as s set the ideological context of the plays staged in England at every cr in the Anglo-Hispanic relationship during the period between 1558 an Thomas Kyd's *Spanish Tragedy*, the work that opened a long and brilliant of the revenge play in the English literary Renaissance, for example, c as a response to the threat of an imminent invasion by the Spanish Ar the 1580's. Shakespeare's *Henry VIII* can also be read as a response to explosion of Anti-Hispanism triggered by the sudden death of Prince champion of the international Protestant alliance against Spain, and th

a second invasion of the Spanish Armada. In this work, Shakespeare directly to the originary moments of the English Reformation, pro remarkably balanced analysis of the forces, both political and personal, that impelled Henry VIII to what amounted to a radical reformation of the church. *Henry VIII*, as such, affords an illuminating commentary on the Anticatholicism/ Anti-Hispanism that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shaping of English national identity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Calderón's *La cisma de Inglaterra*, written in the early years of t when the projected match between Prince Charles and Infanta María England into yet another bout of Anti-Hispanic hysteria, provides an glimpse at Spanish reactions to the English Reformation. Calderón t national drama of the English Reformation into the personal tragedy VIII, placing his attention squarely on the personal motives behind He divorce from Catherine, and his eventual rebellion against the Roman Church and papal authority. In his hand, Henry VIII becomes an Everyman from the grace of God, seduced by the devil in the beautiful shape Boleyn, and England a victim led astray by such a king: England is an o pity rather than of hate. Calderón's play shows in little the chie between Catholic Spain and Protestant England in regarding the English tion. Whatever the Spanish felt about England, very little of it seem added up to anything comparable to the Anti-Hispanism of the English virulence and its significance in the shaping of national identity. continued to dream their imperial dream of the *dominus mundi*, little per the real power of the island country's Anti-Hispanism so unmistakably strated in the defeat of their Armada in 1588.